

【P2-2】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환자의 BIA를 이용한 체지방 측정에 따른 식행동, 생화학적지표, 다른 체지방 지표와의 관계

양명자, 정 은, 노희경
 조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졌다. 그 중 당뇨병은 내분비계 이상으로 오는 여러 질병 중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다. 서구에서는 당뇨병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특히 비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거의 우리 나라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환자들은 서구의 당뇨병 환자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비만에 의한 당뇨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비만의 정도와 더불어 체지방의 분포형태가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환자의 식행동과 생화학적 지표와 다른 체지방을 측정하는 지표들과의 관계를 생체전기 저항 측정법(BIA)에 의한 체지방률(*Male : Lean <8%, Normal <8~15%, Little overweight <16~20%, Overweight <21~24%, Obesity \geq 25%, *Female : Lean <13%, Normal <13~23%, Little overweight <24~27, Overweight <28~32%, Obesity \geq 32%)에 따라 비교 조사하였다. 당뇨병 환자의 BIA에 의한 체지방률이 높을수록 삼두근 피부두겹두께와 견갑골 피부두겹두께, 상완위지방면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p < 0.05$), W/H ratio와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당뇨병 환자들은 비만도가 높을수록 외식의 핏수와 가공식품섭취가 유의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또한 비만도가 낮을수록 음식을 싱겁게 섭취하였으며, 당뇨병에 관한 영양지식을 유의적으로 식생활에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그러나 비만도가 높을수록 식사를 빨리 하고, 단음식도 많이 섭취하였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당뇨병 환자의 체지방률과 당화혈색소, 크레아틴 농도는 비만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성지방농도와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농도, AST, ALT, 혈당치도 체지방률과 관련하여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